

지역주민 건강증진 위한 역할 제고

— 제1차 지역 언론인 초청간담회 개최



부산, 국제, 항도, 주간부산일보 및 부산 KBS, MBC 방송국, 등 부산, 경남지역 주재 신문·방송국의 보건 담당기자를 비롯해 보건사회부 및 부산직할시 보건관계자 등 총4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 계몽 활동에 특히 관심

—WHO 태국훈련생

Dr. Rueangsak 본회 방문



健協은 지역 매체 담당자의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몽교육에 있어서의 매스콤 역할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1차 지역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지난 3월 31일 건협 부산직할시지부에서 개최했다.

보건사회부와 부산직할시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 박선종 국장의 “건강검진의 중요성”, 부산대학교병원 소아과 박희주 교수의 “선천성 심질환 환자의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정기적 건강검진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매스콤의 역할 등에 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언론인 초청간담회에는 동아, 중앙, 한국, 조선, 한겨레, 서울, 경향,

보건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기 위해 지난 3월19일 내한한 WHO태국훈련생 Dr. Rueangsak Siriphoi씨가 3월 21일 본회를 방문해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관리사업과 국민 보건 계몽 사업 현황을 둘러보았다.

특히 검진차를 이용한 오지주민 건강검사와 계몽사업에 관심을 보인 그는 본회 외에도 국립보건원, 가족계획협회 등을 방문하고 3월 25일 귀국했다.

鄭炳敎 홍보부장에 국무총리 표창

-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계몽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健協 본부 鄭炳敎 홍보부장이 지난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거행된 제 17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정부장은 국민건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기생충 퇴치를 위해 기생충감염 0%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하는 한편, 본회 월간지 "건강소식"을 창간하여 15년여동안 오로지 국민 건강의식 계몽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외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몽사업을 전개해 오으로써 본회 건강관리사업 발전

과 국민 보건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함영석 과장도 경기도지사표창

윤기옥 주임에 보사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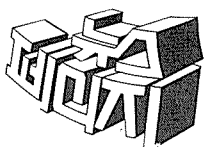
함영석 과장



윤기옥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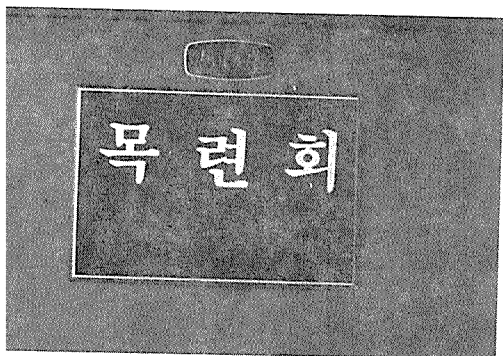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제17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는 또, 건협 경기지부의 함영석 서무과장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본부 기획부 윤기옥 주임이 보건사회부 표창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들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병 감염을 저하에 큰 역할할 듯

- 대전·충남지부, 온양시에 성병진료소 개소



健協 대전·충남지부는 온양시 모종동 조양빌딩 5층에 성병진료소(목련회)

를 설치하고 지난 3월 6일 개소식을 가졌다.

박찬무 온양시장과 정갑희 온양시 보건소장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국비 및 시비 총 3천2백여만원을 들여 설치된 이 성병진료소는 앞으로 건협 대전·충남지부와 온양시 보건소의 상호 협조 하에 유흥접객업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무료 진료와 성병상담을 실시하게 되어 온양시 일대에 산재한 유흥접객업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성병감염을 저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건강관리 정착에 관심

- 건협 대전·충남지부 여성건강상담소 개소



健協 대전·충남지부는 또 지난 4월 1일 여성 건강 상담소를 설치하고 매주 2

회씩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상담을 시작했다.

대전시 및 충남지역 거주 여성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담과 검진을 실시기로 한 여성 건강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협 대전·충남지부가 전담·실시한다.

한편 건협 대전·충남지부 부속의원 강군옥 원장(한국 여의사회 충남지회장)이 여성 건강관리 업무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4월, 고혈압 공개 강좌 개최

4월25일 오후2시 홍보관



健協 서울시지부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부터 홍보관에서 4월 건강관리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이달의 주제는 “고혈압”으로서 서울의 대 내과 최윤식박사를 초빙해 고혈압의 증상, 원인, 치료,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21일에는 고려대학교 유태중 교수를 초빙하여 “성인병과 식이요법”에 관한 강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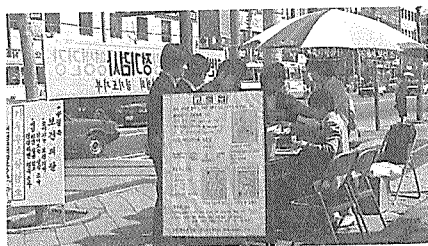
일반주민, 각급 학교 양호교사등 200여 명이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든 이날, 유교수는” 어느 음식이든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그리고 잘 조화시켜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임”

을 강조했다.

가두무료상담 등 다양한 행사

제17회 보건의 달 맞아

健協 본부 및 시도지부는 제17회 보건의 달을 맞아 국민 보건의식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4월17일부터 22일까지를 건강관리강조 주간으로 설정, 가두 무료 건강 상담소를 설치하여 건강상담, 기생충검사 및 투약, 혈액형 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관리교실을 개설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전달한다.

또 각 매스컴의 보건 의료 담당자의 보건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비디오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 건강생활 계몽 운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